

## e-자기주도학습이 미래시간전망과 의사결정을 매개로 진로신화에 미치는 영향

소원근 · 김하균<sup>†</sup>  
(수원대학교 · <sup>\*</sup>부경대학교)

### Effecting the e-Self Directed Learning on Career Myths through Future Time Perspective and Decision Making

Won-Guen SO · Ha-Kyun KIM<sup>†</sup>  
(Suwon University · <sup>\*</sup>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article starts with a review of the e-self directed learning, future time perspective and decision making,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areer myths. In particular, we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future time perspective and the decision mak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areer myths(e.g. relatedness of the test myths, the supreme myth and the family myths). Hence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an empirical model explaining how these factors affect e-self directed learning to future time perspective and decision making. Furthermore, we suggested an expanded model about future time perspective, decision making and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areer myths. We founded that the e-self directed learning significantly affect the future time perspective and the decision making, also the future time perspective affect the test myths and family myths except the supreme myths and the decision making significantly affect the career myths(i.e., the test myths, the supreme myth, the family myths).

**Key words :** e-self directed learning, Future time perspective, Decision making, Career myths, Test myths, Supreme myth, Family myths

#### I. 서론

고등학생 시기는 진로와 학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서는 다른 상황에 의존적인 것이 아닌 자기주도적인 결정을 통하여 진로와 학업을 결정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부모와 타인에 의존한 의사결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압력, 즉 유행에 따른 잘못된 선

택 또는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진로가 결정되는 그릇된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의사결정 주도권을 가지고 목표를 결정하고 전략을 실행하며 스스로 결과를 평가하는 ‘자기주도성’이 필요하다. 학생 개인이 내적 역량을 강화하여 진로와 학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Son En-Ryeong(2006)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736, kimhk@pknu.ac.kr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간접연구비 2015년도 우수논문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은 청소년기 핵심역량의 지표로서 지적도구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사고력 등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핵심역량과의 관계와 협력, 갈등관리로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많은 요소들이 청소년들의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자기주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춰야 함을 강조하였다.

e-자기주도학습은 온라인, 사이버, 모바일 등의 ‘컴퓨터시스템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이다. 지금의 고등학생은 컴퓨터세대로서 모든 것을 컴퓨터를 통하여 해결하는 성향이 있다. 자기주도학습과 컴퓨터프로그램을 결합한 e-자기주도학습은 상당한 교육 효과를 가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 영역을 판단한다. 이와 같이 e-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은 자기주도학습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학습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e-자기주도학습이 미래전망, (진로)의사결정, 진로신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고등학교 학생들의 효과적인 진로신화를 검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실증연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요인들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부산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 처리를 수행하였다. 기초적인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12.0을 사용하여 연구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 적합성,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SmartPLS2.0을 사용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e-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1970년대 학습방법과 교과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 자

기관리, 자기조절 등의 다양한 유사개념들이 자기주도로 혼용되고 있지만, 자기주도라는 것은 ‘주로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자발적인, 스스로 유도된, 스스로 지시받는, 스스로 규제된’ 등의 의미이다. Heo You-Joung(2010)은 자기주도학습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관리하면서 자기성장 방향을 주도적으로 조정하며 창조적으로 배우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e-자기주도학습은 e-러닝학습 환경과 같이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선택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효과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과 환경을 지원하는 웹 기반 e-러닝 시스템은 향상된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이다(Kim Me-Hae, 2011; So Won-Geun · Kim Ha-Kyun, 2012). 텍스트, 동영상, 시뮬레이션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 콘텐츠와 더불어 여러 가지 학습 동기유발 전략을 수립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Lee Hyun-Seob(2013)은 자기주도학습의 경우, 학습수행보다 학습을 위한 외적인 부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익숙하지 못한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준다고 했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소모되는 학습 외적 노력을 줄여주기 위하여 자동으로 취약 영역을 관리해 주는 지능형 맞춤형 학습을 e-자기주도 학습으로 정의했다. e-자기주도학습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과 관련이 있다(So Won-Hyun · Kim Ha-Kyun, 2012).

### 2. 미래시간전망

미래시간전망은 시간체험의 차원으로서 미래를 향하고 있는 인간행동에 작용하는 심리적 영향요인이다. 시간에 관하여 결정된 태도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측면이며,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현재에 영향을 주므로 과거회상과 미래전망은 현

재 행동의 양면성을 갖는다(Kim Byeong-Suk et al, 2007). Thompson(1976)는 청소년기에 미래시간 전망이 확립된다는 연구를 하였다. 미래시간전망을 가진 청년은 연속성, 낙천주의, 진로결정의 확실성 등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시간전망이 길수록 창조적이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Sampson et al(1996)은 청년기에 미래시간전망이 불투명하면 자아정체감의 혼미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래시간전망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며, 자신이 얼마나 미래시간을 지각함에 따라 현재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여년 정도를 미래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미래관을 갖고 있으며, 그 준비도 막연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Byeong-Suk et al, 2007).

### 3. (진로)의사결정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고전적 의사결정 이론에 기초한 진로의사결정의 개인차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Ko Hyeong-Ja(1992)는 의사결정이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이라고 하였다. Whang Hui-Sug et al(2009)는 의사결정유형을 나누었는데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적극적인 진로계획과 정보탐색,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성공적인 의사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연관되며 진로신화와 유의적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Harren et al, 1979).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한 가지 의사결정 전략을 요구하기보다는 다른 유형의 전략을 함께 고려한다. 즉, 진로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유형, 상황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4. 진로신화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진로신화이다. Dryden(1979)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하였다. Nevo(1987)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진로의 좌절에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비합리적인 기대들을 제시하였다. Son En-Ryeong(2006)은 진로신화의 요인으로 노력을 통한 성과지향, 최고 및 완벽지향, 능동적인 진로지향, 보수적인 진로선택,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선택지향 등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진로신화요인은 서구적인 맥락과 인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으며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지 않았다. 진로신화는 진로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 역기능적 진로신념 등의 부정적인 방향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기존의 서양연구들이 진로신화를 진로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고 또는 비합리적인 신념, 역기능적인 사고 등으로 정의한 반면, 국내연구에서 Son En-Ryeong(2006)은 진로와 관련된 긍정적 관념이나 믿음의 체계로 명명하였다. Jeong Mi-Ay(2007)는 청소년의 진로신화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서구의 청소년보다 독특한 진로신화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10가지의 진로신화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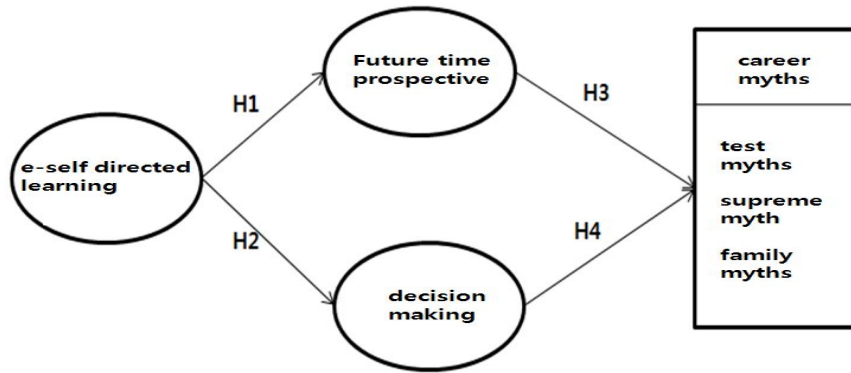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검사신화, 최고성신화, 가족신화를 진로신화의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검사신화는 심리적인 검사결과가 본인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는 의지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하고 무조건 일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부모의 가르침은 성공하는 것이 훌륭하다는 인식이 최고성신화이다. 사회적 신분이 보장되고 가장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가족신화이다.

##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언급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e-자기주도학습이 미래시간전망과 의사결정을 통해 고학생들의 진로신화(검사신화, 최고성신화, 가족신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 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에 나타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 e-자기주도학습과 미래시간전망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이분법적인 개념이기 보다는 보유의 정도를 설명하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내·외적인 요소(미래시간전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요소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Kim Kyo-Sik, 2004). e-자기주도학습의 효과는 미래시간전망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래시간전망에 대한 믿음과 노력이 필요하다(Eskalona, 1963). 자기주도학습이 미래시간전망과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미래희망, 성취동기와 미래시간전망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Spranger, 195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자기주도학습과 미래시간전망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e-자기주도학습이 미래시간전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나. e-자기주도학습과 의사결정

의사결정능력의 발달 성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Park Ji-Young, 2012).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필요성 및 변인들과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Hong, 2011; Kang Beo-Deul · Park Jong-Um, 2014). Harren(1979)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적극적인 진로계획과 정보탐색,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Tolbert(1980)도 자기주도학습과 의사결정 유형 가운데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e-자기주도학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연관성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자기주도학습과 의사결정의 관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2: e-자기주도학습이 의사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다. 미래시간전망과 진로신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신은 잘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는 진로신화이다. 미래시간전망이 진로신화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된다(Eskalona, 1963; Spranger, 1956). Lee Hyun-Lim · Kim Soon-Mi(2007)의 연구에서는 미래낙관에

대하여 진로신화를 검사신화, 자아신화, 계획신화, 선택신화로 나누어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계획신화와 선택신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여고생이 지각하는 진로신화와 미래시간전망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Lee Seung-Hyun, 2005; choi, Tae-Jin, 2014; Lee, Sang-Su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시간전망과 진로신화의 관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3: 미래시간전망이 진로신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1: 미래시간전망이 검사신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2: 미래시간전망이 최고성신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3: 미래시간전망이 가족신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라. 의사결정과 진로신화

Son En-Ryeong(2006)은 대학생들이 진로신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진로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기존의 진로신화를 진로와 관련된 신념이나 체계로 명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 혹은 행동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Larson et al(1988)은 진로신화와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사이의 관계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청소년의 진로신화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서구의 청소년보다 독특한 진로신화를 갖고 있다(Kim Byeong-Suk et al, 2007).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진로신화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과 진로신화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4: 의사결정이 진로신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1: 의사결정이 검사신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2: 의사결정이 최고성신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3: 의사결정이 가족신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V.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 1. 자료수집 방법

e-자기주도학습이 진로신화(검사신화, 최고성신화, 가족신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을 이용하였다. 부산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모든 측정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2014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직접방문과 함께 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총 330부를 배부하여 30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불성실한 응답 10부와 늦게 도착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288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응답자들의 특성을 <Table 1>로 제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e-자기주도학습은 컴퓨터를 통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하면서 자기성장 방향을 주도적으로 조정하며 배우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e-자기주도학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스스로 e-자기주도학습이 무엇인지 안다. 스스로 e-자기주도학습을 원한다. 스스로 e-자기주도학습을 계획하고 실행가능하다. 나는 e-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있다

###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 접근방법인 편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 PL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방법 도구는 SmartPLS 2.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PLS 접근방법을 사용한 주요 이유는 연구의 목적이 최상의 인과관계를 찾기보다는 특정 경로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집중 타당성, 판별타당성)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0.7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중타당성 검증은 각 요인의 요인적재값, 구성신뢰도 및 AVE 값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적재값은 0.6, 구성신뢰도 지수는 0.7, AVE 값은 0.5이상이어야 집중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판별타당성은 AVE 값의 제곱근 값과 잠재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AVE 값이 다른 잠재변수 간의 종과 횡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Table 2>, <Table 3>에서 나타나듯이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은 SmartPLS2.0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모형분석을 통하여 경로계수와 내생변수에 대한 결정계수(R<sup>2</sup>) 값을 알 수 있었다. SmartPLS2.0에서 제공하는 부스트랩 리샘플링 방법으로 900번 리샘플링한 뒤 연구모형의 각 경로를 분석하였다. [Fig. 2]는 각 항목의 요인들 사이의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즉, e-자기주도학습과 미래시간전망, 의사결정 그리고 진로신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통하여 요인과의 관계로 나타낸 것으로서 실선 화살표 방향은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전체가설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였다. <Table 4>는 가설검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Section		N	%	Section		N	%	
gender	Male	158	55	e-self directed learning average time per weekly	10 m	3	1	
	Female	130	45		10-30 m	6	2	
school year	high 1	35	12		30-60 m	40	14	
	high 2	89	31		1-2 hours	135	47	
	high 3	164	57		3-4 hours	84	29	
wanting job	office	26	9		over 4	20	7	
	teacher	40	14	institute number (private education)	none	52	18	
	business	14	5		1	92	32	
	government	32	11		2	60	21	
	researcher	20	7		3	60	21	
	actor	12	4		4	17	6	
	doctor	12	4		over 5	6	2	
	e-self directed learning weekly	lawyer	6	2	pay for monthly private education (dollars)	under 50	43	15
		engineer	7	3		50-100	12	4
		pro player	7	3		110-300	63	22
		programer	12	4		301-500	84	29
		designer	14	5		501-1000	60	21
		consultant	12	4		over 1000	26	9
		politician	7	3	grade in class	1-2	40	14
etc		63	22	3-5		46	16	
e-self directed learning weekly	under 1	26	9	6-10		63	22	
	1-2	78	27	11-20		104	36	
	3-5	84	29	21-30		29	10	
	6-7	81	28	over 30	6	2		
	over 8	20	7	wanting grade (future grade)	1-2	150	52	
			3-5		49	17		
			6-10		52	18		
			11-20		9	3		
			over 30		29	10		

<Table 2> Reliability and Internal Consistency

Variables	Items	Factor	Composit Reliability	Cronbach's $\alpha$	AVE
e-self directed learning	SE1	0.601	0.806	0.773	0.518
	SE2	0.738			
	SE3	0.705			
	SE4	0.884			
future time perspective	LO1	0.819	0.848	0.774	0.587
	LO2	0.873			
	LO3	0.758			
	LO4	0.587			
decision making	AD1	0.811	0.885	0.832	0.659
	AD2	0.805			
	AD3	0.787			
	AD4	0.847			
test myths	PE1	0.670	0.914	0.871	0.729
	PE2	0.919			
	PE3	0.937			
	PE4	0.865			
supreme myths	IN1	0.932	0.933	0.904	0.780
	IN2	0.877			
	IN3	0.954			
	IN4	0.758			
family myths	AR1	0.824	0.831	0.779	0.515
	AR2	0.867			
	AR3	0.800			
	AR4	0.619			

<Table 3>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Construct	average	Std. error	e-self directed learning	future time perspective	decision making	test myths	supreme myths	family myths
e-self directed learning	2.789	.718	0.719					
future time perspective	3.212	.514	.352***	0.766				
decision making	3.173	.759	.196**	.055	0.811			
test myths	3.539	.653	.063	.201***	.138	0.853		
supreme myths	2.986	.602	.543***	.301***	.130	.027	0.883	
family myths	3.114	.770	.297***	.143*	.256***	.122*	.483**	0.717

가설 H1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e-자기주도학습이 스스로 미래에 원하는 것,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인생의 새로운 계획,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H2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가설은 채택되었다. e-자기주도학습은 본인이 직업을 택할 수 있다는 의지, 본인 의사결정에 대한 분명한 이유, 진로를 위한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장·단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설 H3은 유의수준 5%에서 가설 H3-1, 가설 H3-3은 채택되었고 가설 H3-2는 기각되었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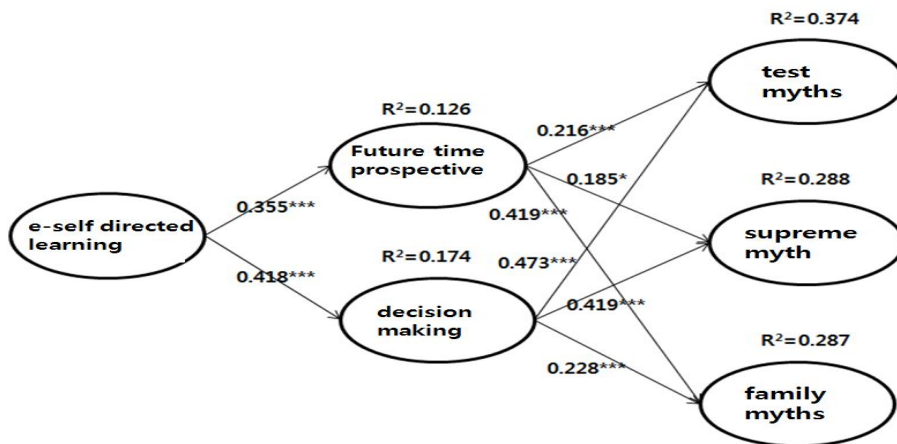
설 H3은 부분채택 되었다. 가설 H3-1은 미래시간 전망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학생은 심리검사가 적합한 직업, 정확한 진로, 옳은 선택에의 도움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설 H3-2은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시간전망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학생은 높은 지위의 진로는 미래보장, 대기업의 취업, 성공은 좋은 직업, 고소득 직업에 대한 선택 등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가설 H3-3은 미래시간 전망이 부모님이 나의 진로에 대한 책임, 집안의 직업이 나의 진로, 부모님이 나의 진로선택, 친척들이 나의 진로선택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설 H4은 채택되었다. 가설 H4-1은 의사결정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는 심리검사가 적합한 직업, 정확한 진로, 옳은 선택에 도움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설 H4-2은 의사결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높은 지위의 진로는 미래보장, 대기업의 취업, 성공은 좋은 직업, 고소득 직업에 대한 선택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설 H4-3은 의사결정이 부모님이 나의 진로에 대한 책임, 집안의 직업이 나의 진로, 부모님이 나의 진로선택, 친척들이 나의 진로선택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구조모형의 두 번째 결과는 내생변수에 대한 결정계수( $R^2$ )의 결과 값이다.  $R^2$ 값은 예측변수가 가지고 있는 총 변동 중에서 회귀선,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R^2$ 값이 0.26이상이면 적합도를 ‘상’으로, 0.26~0.13이면 ‘중’으로 0.13이하는 ‘하’로 표시할 수 있다(Cohen, 1988). 구성요소 값이 미래시간 전망과 의사결정은 ‘중’으로 검사신화, 최고성신화, 가족신화는 ‘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H3-2를 제외한 연구모형의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3-2는 유의수준 10%에서는 채택되나 유의수준 5%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한 연구모형이 최고성신화를 제외하고는 국내연구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첫째, e-자기주도학습과 미래시간전망 및 의사결정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학습이 컴퓨터, 온라인, 모바일, 사이버 강의 등의 환경이 다양하지만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한다는 자기주도학습의 본질에 벗어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e-자기주도학습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Fig. 2] The Result of Research Model



<Table 4> The Result of Research Model Hypothesis Test

Hypothesis Path Relation	Std. Estimate	t-value	Result
H1: e-self directed learning -> future time perspective	0.355	3.261***	Accept
H2: e-self directed learning -> decision making	0.418	4.323***	Accept
H3-1: future time perspective -> test myths	0.216	2.301**	Accept
H3-2: future time perspective -> supreme myths	0.185	1.743*	Reject
H3-3: future time perspective -> family myths	0.419	2.607***	Accept
H4-1: decision making -> test myths	0.473	6.294***	Accept
H4-2: decision making -> supreme myths	0.419	4.157***	Accept
H4-3: decision making -> family myths	0.228	4.631***	Accept

\*p<0.1, p\*\*<0.05, p\*\*\*<0.01

둘째, 가설 H3-1, H3-3의 미래시간전망과 검사신화, 가족신화는 채택되었다. 고등학생의 특성상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는 대상을 조사한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시간전망이 진로신화에 대한 국내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설 H3-2는 기각되었다. 이는 미래시간전망이 좋더라도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시간전망의 투자는 장래를 보장하는 것이 장래직업의 최고에 대한 보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국내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셋째, 가설 H4의 의사결정과 검사신화, 최고성신화 및 가족신화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의사결정이 진로신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부산권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최근에 e-러닝의 발전에 따라 중요변수로 떠오른 e-자기주도학습이 미래시간전망과 의사결정을 통하여 진로신화(검사신화, 최고성신화, 가족신화)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검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문헌연구,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진로신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미래시간전망과 의사결정 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자기주도학습과 미래시간전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자기주도학습과 의사결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고등학교의 입시에서도 e-러닝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e-자기주도학습이 계속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둘째, 미래시간전망과 진로신화(검사신화, 최고성신화, 가족신화)는 최고성신화를 제외하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는 가족신화(부모님이 나의 진로에 대한 책임, 집안직업이 나의 진로, 부모님이 나의 진로를 선택, 친척들이 나의 진로를 선택)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으로는 의외이다. 셋째, 의사결정이 진로신화(검사신화, 최고성신화, 가족신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라도 본인의 의사결정이 진로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것과 같이, 본 연구결과는 교육컨설턴트, 교육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향후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e-러닝의 한 방향인 e-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하여 모델화하였다. e-자기주도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변

화하는 교육트렌드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교육컨설팅과 교육관계자는 e-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e-자기주도학습이 진로 및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등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과 진로 결정을 검증했다. 즉, 고등학생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e-자기주도학습의 변화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까지 e-교육 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학계의 연구 활동이 미미한 상황에서 e-자기주도학습을 통해 e-교육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보고자 노력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학교 학생으로부터 많은 표본을 수집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 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정함으로써 논점을 일반화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학교 학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e-자기주도학습이 진로 및 학업에 미치는 특성요인을 e-자기주도학습, 미래시간전망, 의사결정, 진로 신화(검사신화, 최고성신화, 가족신화)의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그러나 위의 요인 외에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진로신화의 요인을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e-자기주도학습이 진로 및 학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하였지만, 조절변수를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직업과 학력, 소득 등 학생과 관련된 특성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Choi, Tae-Jin(2014),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influence of teacher efficacy and collectivistic self-esteem ad protective factor on teacher burnout.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6(3), 510~524.

Cohen, J. O.(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Dryden, W.(1979). Rational-emotive therapy and its contribution to career counseling.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7, 181~187.

Eskalona, S.(1963). The influence of topogical and vector psychology upon current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 L. Carmicjael (Ed.). Manual of child psychology. 3rd. ed., New York.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Heo, You-Joung(2010). education suggestion about self directed studies of composit fa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Hong, Soo-Man(2011).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martphome application for the baby multimedia book for supporting self-directed learning, Ewha womans master thesis.

Jeong, Mi-Ay.(2007). career myths of university student effect on career confidence. Kounggi university master thesis.

Kang, Beo-Deul · Park, Jong-Un(2014), A study on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change of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s education through opera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 model school.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6(2), 257~269.

Kim Kyo-Sik(2004). Affect about self-study and career attitude. Korea University Master Thesis.

Kim, Byeong-Suk et al.(2007). study on career myths of youth.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 15~34

Kim, Me-Hae(2011). web based e-learning system for supporting the effective self directed learning environment. J. of korean contents, 11(9), 524~535.

Ko, Hyeong-Ja.(1992). the effect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decision making forms on level of career decision and setting the career. Sookmyung women University Doctoral Thesis.

Larson, K. M. et al.(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 of consulting psychology, 35, 439~446

Lee Hyun-Seob(2013). Design and embody of intelligence self directed studies web affecting the

- computer education and level of studies information. *J. of computer education studies*, 16(4), 55~62.
- Lee, Hyun-Lim · Kim, Soon-Mi(2007), The effect of educational carrier perceptions and career myths on career development for high school girls' students, *J. of Career Myths research*, 20(3), 56~71
- Lee, Sang-Su et al.(2014),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6(2), 382~391.
- Lee, Seung-Hyun(2005), The relation of self-confidence and career decision in the high school girls's student. Kounbok university master thesis.
- Nevo, O.(1987). Irrational expectations in career counseling and their confronting argum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 239~250.
- Park Ji-Young(2012).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cision making abilities in young childre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Korean J. of Child Studies*, 33(6), 71~84
- Sampson J. P. · Peterson, G. W. ·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1996). *Career though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o, Won-Geun · Kim, Ha-Kyun(2012). A Study Influence of the Motivational Characteristics of m-Learning on the Learning Outcome.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4(3), 368~377.
- So, Won-Hyun · Kim, Ha-Kyun(2013). The Effects of Transfer of Education Training on Korean Enterprise Revitalization :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Training Program and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in Cyber Education.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5(3), 661~676.
- Son, En-Ryeong(2006). career myths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 *consultation studies research*, 7(2), 447~465
- Spranger, E.(1956). *Psychologie des Jugendalters*. Aufl, Heidelberg.
- Thompson, A. P.(1976). Client misconceptions in vocational counseling.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55, 30~33.
- Tolbert, E. L.(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Whang, Hui-Sug et. al.(2009). the difference of genius middle school student area, career achievement according to school year and career decision making pattern. *korean education studies research*, 15(2), 79~102.
- 
- Received : 19 March, 2015
  - Revised : 19 May, 2015
  - Accepted : 28 May, 2015